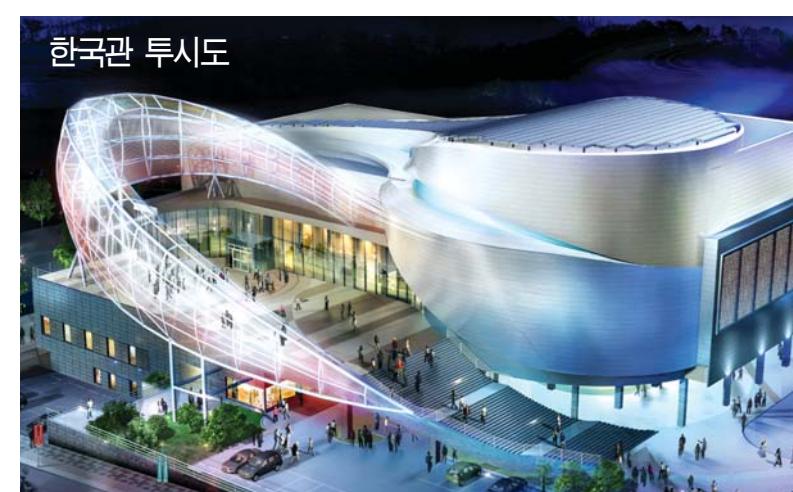




불꽃·레이저쇼 펼칠 빅오와 이어도

여수 신항 해상에 설치된 '빅오(Big-O)'와 '이어도'로 불리는 해상무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빅오'는 세계박람회 최초로 바다 위에 설치되는 원 모양의 거대한 상징물로, 박람회 기간 동안 불꽃 쇼와 레이저 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볼거리·즐길거리 아는 만큼 보인다

■ 놀치면 후회 할 명품 박람회 시설

'아는 만큼 보인다'. 여수세계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치러지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인 만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전시설과 이벤트가 뛰어난다. 그만큼 전시관과 공연 일정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꼼꼼히챙겨야 후회하지 않는다.

박람회장 '아이콘' 빅오 (BIG-O)

여수신항 전면 해상에 설치되는 빅오(Big-O)는 세계박람회 최초로 바다 위에 설치되는 원 모양의 거대한 상징물로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불꽃과 레이저 등으로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다 위에 설치된 높이 45m, 폭 38m의 '0'자형 구조물(디오·The O)과 '이어도'로 불리는 해상무대, 해상분수로 이뤄져 있다.

해상무대 이어도는 중량 600톤, 길이 48m, 너비 30m, 높이 2m의 타원형 무대로 물 위 1m까지 떠오르기도 했다가 20cm 깊이까지 잠기기도 한다. 공연자들이 바다 위에서 거닐고

유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어도'와 '디오' 사이의 해상분수는 물줄기를 스크린 삼아 영상을 연사하는 '리빙 스크린(Living Scree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간에는 30분 간격으로, 야간에는 The O와 함께 뉴미디어 쇼를 연출하게 된다.

디지털 갤러리엔 '꿈의 고래'

박람회장과 연결되는 여수역에 내리면 보이는 천정이 디지털화된 엑스포디지털갤러리(Expo Digital Gallery) 거리는 빼놓지 말고 둘러봐야 한다. 길이 415m, 폭 21m의 구간 중 218m에 걸쳐 LED 영상이 펼쳐져 마치 비단속을 걷는 듯한 미래 가로수길의 모습이 연출된다. 사람들이 보내는 희망 사진 메시지를 보여주는 '꿈의 고래'를 볼 수 있는 곳도 여기다.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1만 6400m²)은 6030t의 바닷물로 수조를 채우고 흔들고래, 바이칼물고기, 해룡

등 세계적인 멀종 위기 희귀종을 비롯해 300종류를 전시한다. 코엑스와 부산 아쿠아리움을 합친 것보다 크다.

20개로 구성된 독특한 전시관

박람회장 내 전시관은 모두 20개. 자칫 '사람 구경'만 하다 돌아오지 않으면 꼼꼼히 살피고 가야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주제관은 바다 위에 세워지는 세계 최초의 해상전시관(7591m²)으로, 건물 외벽을 장식할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는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을 설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조형물.

전시시설 중 가장 면적(13만2649m²)이 넓은 국제관은 빼놓지 말아야 한다. 106개 참가국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각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와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독일관의 경우 360도 극장을 놓쳐서는 안된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은 잡수함을 타고 2050년의 해저를 탐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탈리아관은 지중해 동식물의 관

립을 위한 멀티미디어 공간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서 발굴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품이 전시되고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지중해 식단'도 선보인다. 박람회장 앞바다에 크루즈 선박을 정박하고 '바다 위의 이탈리아관'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은 전시관에 대지진과 쓰나미를 전시내용으로 삼아 자연의 위험을 알리고 다양한 지원을 보내준 국제 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겼다는 구상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크루즈 비자 면제 차질... 유람선 관광 비상

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비자 면제가 박람회 개막일 이 훨씬 지나는 5월 27일부터 적용돼 이전에 박람회 관광이 예약된 일부 크루즈 관광객들은 박람회 관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척의 크루즈선은 5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운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월 10~20일 운항 일정의 중국 동방신룡사 캐피털드래곤 글로벌호, 5월 16일 입항할 미국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관광객들은 비자 면제가 안돼 현재로선 박람회 관광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수시는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의를 끌어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건의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온라인 만평

- 김종두



그저... 급하고 아쉬우면 찾는소리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2번지 151-1번지 FAX (062) 234-3141

세계 자연문화 유산이 빛나는

앙코르와 캄보디아!!

무안-씨엘립 전세기(12/24~ 2/28 총 20회)



씨엘립 3박4일 [준특급. 토요일출발] ₩ 799,000~
씨엘립 3박5일 [준특급. 화요일출발] ₩ 799,000~

불포함: 유유세(137,000원), 캄보디아비자(\$20), 선택관광, 가이드및기사립(\$30)

골프
씨엘립 3박4일 [준특급. 토요일출발] ₩ 1,160,000~
씨엘립 3박5일 [준특급. 화요일출발] ₩ 1,160,000~

불포함: 유유세(137,000원), 캄보디아비자(\$20), 선택관광, 가이드및기사립(\$30)

골프시-클럽증식3회 캐디립(18홀-\$5) 공동경비(\$10)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4일 ₩ 369,000 출발일 2/4,7,9,12,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광주-부산 수송

일본 전통로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 489,000 출발일 2/4,7,9,12,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광주-부산 수송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텔보스

4일 ₩ 549,000 출발일 2/4,7,9,12,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광주-부산 수송

겨울철 구중산 산행

4일 ₩ 399,000 출발일 2/15,25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품격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일 ₩ 969,000 출발일 2/25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오랜전통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목포-제주도 ₩ 139,000원~

장흥-제주도 ₩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팀(₩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제주도 ₩ 2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팀(₩10,000원)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 (상해경유)



₩ 839,000~

₩ 789,000~

₩ 989,000~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팀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폴/바탐 (상해경유)

3박5일 ₩ 1,149,000~

3박5일 ₩ 1,219,000~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너팀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4일 ₩ 849,000~

3박4일 ₩ 859,000~

4박5일 ₩ 989,000~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팀

겨울에 떠나는 중국여행!!

5일 무안-북경 ₩ 599,000~

4일 무안-상해, 황주, 소주 ₩ 629,000~

5일 무안-상해, 황산 황주 ₩ 799,000~

6일 인천-계림, 양식, 이프 ₩ 499,000~

불포함: 유유할증료, 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팀



*상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별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